

# Chapter 1. 인문

2020학년도 6월

104 p

1 ② 2 ④ 3 ⑤ 4 ⑤

문제 푸는 순서

- ① 2.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② 1.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③ 3.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④ 4. 윗글의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난이도 중하 ●●○ 사실적 읽기

1.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피쿠로스 사상의 성립 배경  
-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 ✓ ② 에피쿠로스 사상의 목적과 의의  
- 신, 인간, 우주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③ 에피쿠로스 사상에 대한 비판과 옹호  
- 사상의 한계와 발전적 계승을 중심으로
- ④ 에피쿠로스 사상을 둘러싼 논쟁과 이견  
- 당대 세계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⑤ 에피쿠로스 사상의 현대적 수용과 효용성  
- 행복과 쾌락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①	②	③	④	⑤
5%	87%	3%	3%	2%

정답 해설

② 표제 : 에피쿠로스 사상의 목적과 의의

(1문단)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 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 '에피쿠로스 사상의 목적 =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고, '의의 =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제 : 신, 인간, 우주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2문단)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3문단) 한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본다

(4문단)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 신과 인간, 우주를 설명하여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고,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표제: 에피쿠로스의 사상의 성립 배경

(1문단)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 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 에피쿠로스의 사상의 성립 배경은 당대의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것 때문이다.

부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없는 내용

(1문단) 이를 위해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얘기한 것이다.

③ 표제: 에피쿠로스 사상에 대한 비판과 옹호

없는 내용

↳ 에피쿠로스 사상을 비판하고 이를 옹호하는 입장은 지문에 나와 있지 않다.

부제: 사상의 한계와 발전적 계승을 중심으로

없는 내용

↳ 에피쿠로스 사상의 한계와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은 지문에 나와있지 않다.



발전적 계승이란 이전의 이론들을 본받아서 이를 발전시킨 것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1을 본받아서 만든 스타크래프트2 같은 작품을 말한다.

④ 표제: 에피쿠로스 사상을 둘러싼 논쟁과 이견

없는 내용

↳ 에피쿠로스 사상을 둘러싼 논쟁과 이견은 지문에 나와있지 않다.

부제: 당대 세계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문단)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 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 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 당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과 이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에피쿠로스'간의 비교를 확인할 수 있다.

⑤ 표제: 에피쿠로스 사상의 현대적 수용과 효용성

없는 내용

↳ '현대적'으로 봤을 때 에피쿠로스 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이에 대한 효용성은 지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해. 에피쿠로스 사상의 현대적 수용과 효용성 vs 에피쿠로스 사상의 수용과 효용성. 둘은 완전 다른 말이야. '현대적'이라는 말이 잘 안와닿는다면 '비판적'이라는 단어를 넣어봐도 좋아. 이렇듯 수식어에 따라 너무 다른 말이 돼!

부제: 행복과 쾌락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없는 내용

(5문단)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에피쿠로스 사상에서의 행복과 쾌락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이 둘의 상관성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

난이도 중하 ●●○ **사실적 읽기**

2.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과 ㉢은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② ㉠은 우주가 신에 의해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를, ㉡과 ㉢은 인간의 사후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③ ㉡과 ㉢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를, ㉣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 ✓ ④ ㉡과 ㉢은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⑤ ㉡과 ㉢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를, ㉣은 인간이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5%	3%	4%	86%	2%

**정답 해설**

④ ㉠은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1문단)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의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는 믿음에 대해 잘못된 믿음이라고 주장한다.

(2문단)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신론적 관점을 주장한다.

↳ ㉠은 인간사에 신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은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4문단)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중략)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 ㉡은 신의 관여는 없다고 보았다.

㉢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5문단)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윤리학을 펼쳐 나간다. (중략) 그는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에 따르면, 영혼이 안정된 상황이 되면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제시한다.  
→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하는

반대로

(2문단)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신론(理神論)적 관점을 주장한다.

↳ ㉠은 신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신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 인간이 신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한다'이다.

㉡은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4문단)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은 (중략)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 ㉡은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관여는 없고,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신의 섭리는 없다 =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라'이다.

㉢은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5문단)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윤리학을 펼쳐 나간다. 결국 그는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 ㉢은 신의 개입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신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② ㉣은 우주가 신에 의해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를 제시한다  
→ 믿지 않는

반대로

(2문단) ㉣이신론적 관점을 주장한다. 그는 불사 하는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다른 어떤 것에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다.

↳ ㉣은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 우주가 신에 의해 운행되지 않는다'이다.

㉤과 ㉥은 인간의 사후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없는 내용

↳ ㉤과 ㉥의 사후에 대한 탐구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③ ㉦과 ㉧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없는 내용

↳ ㉦과 ㉧의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 사후 세계에 대한

수식어

(5문단)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윤리학을 펼쳐 나간다. 결국 그는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에피쿠로스 윤리학은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제시했지만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⑤ ㉩은 인간의  
→ 신

주체 바꾸기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를 제시한다.

없는 내용

(2문단)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신론적 관점을 주장한다.

↳ ㉩은 '인간'이 아니라 '신'을 언급하는 것이며, 신의 존재 위치는 언급하지만, 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없다.

㉪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를 제시한다.

없는 내용

↳ ㉪이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를 제시하는 부분은 지문에 나와있지 않다.

㉫은 인간이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없는 내용

↳ ㉫의 인간이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은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난이도 중 ●●○ **사실적 읽기**

3. 뒷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의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인과 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 그것이 자유 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
-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①	②	③	④	⑤
4%	4%	25%	7%	60%

**정답 해설**

비판을 할 때는 크게 4가지로 할 수 있다.

- ㉠ 너의 말 안에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
- ㉡ 너의 말의 논리 전개 과정 속에 오류가 있다.
- ㉢ 너가 빼먹은 것들이 있다.
- ㉣ 너가 말한 것 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

ㄴ.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인과 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 그것이 자유 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4문단)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여 비스듬히 떨어지고 충돌해서 튕겨 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라고 본다.**

ㄴ 원자는 우연적인 운동을 하며 -> 원자로 이루어진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자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우연적이어야 한다.

(4문단)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다)** 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 의지의 단초로 삼는다.**

ㄴ 인간도 원자로 이루어져있으므로, 인간의 삶 역시 우연적일 수 있다. 하지만 모순되게도, 에피쿠로스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자유의지를 가지면 반드시 인간의 삶이 우연적일 수가 없다. 따라서 ㄴ이 에피쿠로스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다.



"㉡너의 말의 논리 전개 과정 속에 오류가 있다."에 해당한다.

ㄷ.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

(3문단)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인간은 사후(死後)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살아 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 에피쿠로스는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기에 사후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인간의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ㄷ에 에피쿠로스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다.

ㄹ.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연 재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1문단)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 사람들은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 천체 현상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ㄹ처럼 사람들이 자연재해 자체를 두려워한다면 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에 에피쿠로스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다.



"㉠너가 빼먹은 것들이 있다."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ㄱ.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의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4문단)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다고 말하며, 인간의 삶에서 신의 섭리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ㄱ은 비판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너가 빼먹은 것들이 있다."에 해당한다.

난이도 중 ●●○ **추론적 읽기**

**4. 밑글의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라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며, 일체의 훌륭한데 있어서도 탁월한 존재이지. 언제나 신은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성장과 쇠퇴, 분리와 결합에 있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이르도록 이끈다네.

- ① 신을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 보는 <보기>의 생각은,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② 신이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모든 것들을 이끈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은, 우주를 '우연의 산물'로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③ 신을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로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불사하는 존재'라고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군.
- ④ 신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는 <보기>의 생각은, 행복이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⑤ 신이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의 외부에서 온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군.

①	②	③	④	⑤
3%	6%	7%	5%	78%

**정답 해설**

⑤ 표제: 신이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과

↳ <보기>에 따르면,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2문단)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 에피쿠로스는 신이 '중간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부제: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의 외부에서 온다고 보는 공통점이**  
 → **신의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차이점이 있군.**

↳ <보기>에 따르면 신은 모든 것을 이끈다. 따라서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 = 인간 세계의 외부에 있다'이므로, 신의 영향력이 인간의 세계 외부에서 온다고 본다고 할 수 있다.

(2문단)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신론(理神論)적 관점을 주장한다.

↳ '신이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있다 = 신이 인간 세계의 외부에 있다'이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신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의 영향력은 아예 없다.

오답 피하기

① 표제: 신을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 보는 <보기>의 생각은

↳ <보기>에 따르면 ‘신’은 탁월한 존재이며, 모든 것들을 이끈다.  
‘모든 것을 이끈다 = 모든 것들의 원인’이다.

부제: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2문단)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 하지 않는다는 이신론(理神論)적 관점**을 주장한다.

↳ 에피쿠로스는 이신론적 관점을 주장하면서, 신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② 표제: 신이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모든 것들을 이끈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은

↳ <보기>에 따르면, ‘신’은 탁월한 존재이며,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모든 것들을 이끈다.

부제: 우주를 ‘우연의 산물’로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4문단)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 졌으므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라고 본다.

↳ 에피쿠로스는 우주를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다.

③ 표제: 신을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로 보는 <보기>의 생각과

↳ <보기>에 따르면, 신은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이다.

부제: 신이 ‘불사하는 존재’라고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군.

(2문단) **그(에피쿠로스)는 불사하는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다른 어떤 것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 에피쿠로스는 신은 불사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④ 표제: 신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는 <보기>의 생각은

↳ <보기>에 따르면 ‘신’은 탁월한 존재이며,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이르도록 이끈다.

부제: 행복이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5문단)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에피쿠로스는 인간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도록 하였다. 또한 인간이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행복은 인간이 자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을 인간이 자율적으로 추구한다 = 행복은 인간 자신으로부터 완성된다’이다.